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가구당 28만원 아꼈다

가스공 반년간 1만7729가구 혜택
복잡한 절차에 놓친 취약계층 발굴
대구 본사 기반 전담 콜센터 운영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경감 혜택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은 가구가 반년 만에 1만7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당 연평균 절감액은 약 28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쳤던 취약계층을 공공기관이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총 1만 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받았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거친 뒤 지자체·도

시·군·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1만8825가구를 파

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1만 7000여 가구가 실제 요금 경감으로 연결됐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절감액은 27만9330원으로,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는 184만 가구다.

한 독립유공자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 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구 본사를 기반으로 지역번호 053을 사용

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데 만큼 보이시피싱이나 스팸으로 오해하지 말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고,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표 사례로 뽑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나선 사례”라며 “향후 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AI 전환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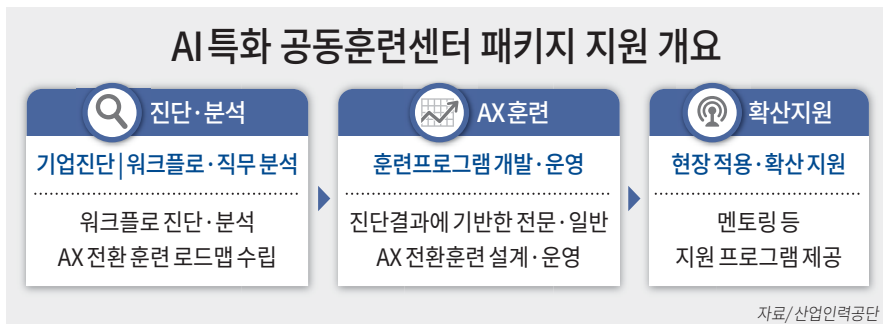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 선정
진단·현장적용 등 맞춤 패키지 제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현장 활용’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단위 거점 육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선정해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모델을 기반으로,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AI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AI’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



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진단·훈련·확산’의 3단계 패키지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AI 도입 준비 수준과 업무 병목을 진단하고, 기업 맞춤형 AI 훈련 로드맵을 수립한다. 2단계에서는 대표이사(CEO)를 대상으로 한 인사이드 교육(일반 AX)과 실무자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전문 AX)이 병행된다. 실무 훈련은 최소 18시간 이상 실습 위주로 구성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훈련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가 현

장을 밀착 지원하며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AI 전환 성과를 확산시킨다.

공단은 수도권·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분포를 고려해 20곳 내외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비 및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되며,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도 제공된다. 훈련비 역시 기존 대비 최대 300% 수준의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책정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제주대와 그린수소 상용화 협력

업무협약 맺고 초격차 기술 확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주를 거점으로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한수원은 19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와 그린수소 초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용량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사업화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제주 2035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력 과제 추진 등에 공동 대

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사업 경험을 축적해왔다. 2022년부터 부안 2.5MW, 제주 10.9MW 규모의 상용급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 지역에 그린수소 통합제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고도화된 수전해 운전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한수원은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그린수소 생태계를 제주에 구현하고, 향후 국내외 그린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그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19일 제주대학교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그린수소 초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린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적합한 그린수소 생산지인 제주에서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그린수소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산물, 아이디어 만나면 충분한 경쟁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 창업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정부가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내 창업을 적극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 소재의 ‘미원산골마을빵집’을 찾은 자리에서 “농촌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원면 산골마을빵 사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창업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역의 농산물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농촌은 창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밀·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속편한빵, 건강한빵’으로 입소문을 탔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우리 밀과 쌀을 주재료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르는 전 과정을 둘러봤다. 제품 생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밀과 쌀을 사용해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연매출이 2020년 5000만원에서 2025년에 5억원으로 늘어났다. 매출 증가는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졌고 주민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했다.

김희상 미원산골마을빵 대표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창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마을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양환경공단, 재활용 ‘국제인증 2종’ 획득

고품질 원료 안정적 공급 토대 마련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인증)’와 ‘OBP(해양유입 플라스틱)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일에서 주관하는 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됐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주관의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

는 제도다.

이번 2종의 인증은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향선 및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술)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